



정 찬 화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김영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학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역대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76년 출범 이후 반세기 동안 귀 학회가 이룩한 학문적 성취와 산업적 기여는 우리나라 고분자 과학기술의 토대를 세웠을 뿐 아니라, 화학·소재 산업 전반의 발전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로서 축적해 온 연구 역량과 인재 양성의 전통은, 고분자 기술에 뿌리를 둔 오늘의 대한민국 첨단 핵심소재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떠받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그동안의 성취를 집대성하여 발간되는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다가올 100년의 비전을 가다듬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분자과학과 화학공학은 기초의 엄밀성과 응용의 실용성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두 학회는 오랜 시간 학문적 시너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고분자 소재의 합성·가공·물성 해석에서부터 공정 설계, 스케일업, 환경·안전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유해 온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는 화학 신소재의 개발과 상용화에 큰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학술대회와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의 정착은 젊은 연구자들이 폭넓은 경험을 쌓고 국제적 안목을 기르도록 하며,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며 몇 가지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장기적 혁신 역량이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산업계와의 협력 모델이 한층 확장되어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탄소중립·순환경제·친환경 소재 등 인류적 과제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통해 한국 고분자 과학기술의 국제적 리더십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고분자과학과 화학공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풀어 가야 할 공동의 책무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그간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와 함께 학술 교류를 넓히고 공동 연구·교육·산업 협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양 학회의 동행이 미래 소재·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 연구자들에게 더 넓은 무대를 열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정 찬 화